Monday, May 11, 2020 (2020-19 호)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美-中 무역전쟁 재개, 리스크는 크고 소득은 적을 것
  - ◇ (POLL)-코로나 19 판데믹 속 달러 강세 지속될 것
  - ◇ (초점)-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증액 파장 '촉각'
  - ◇ (초점)-호·악재 뒤엉켜 달러/원 방향 묘연..해외 기관들 '상고하저' 전망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단체 회원들이 백악관 밖에서 시위를 하면서 코로나 19 로 사망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상징하는 흰 신발을 길에 배치했다. (로이터/톰 브레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19.9	-0.1%	-5.2%	-3.5%
100엔 대비	1,143.3	0.2%	-7.1%	-4.4%
유로 대비	1,322.1	1.7%	-2.1%	-1.3%
위안 대비	172.38	0.6%	-3.9%	-2.4%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코스피	1,945.82	-0.1%	-11.5%	7.7%
코스닥	682.30	5.8%	1.9%	-0.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3Y	0.914%	-9.2bp	-44.6bp	-45.7bp
국고채 5Y	1.166%	-8.0bp	-31.4bp	-40.4bp
국고채10Y	1.426%	-9.2bp	-25.7bp	-26.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유가(WTI)	24.74	25.1%	-59.5%	34.5%
금(현물)	1,700.65	0.1%	12.1%	18.3%
TR상품지수	2,097.20	0.8%	-15.6%	4.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유로	1.0840	-1.3%	-3.3%	-2.3%
엔	106.65	0.3%	1.8%	0.9%
위안	7.0850	-0.1%	-1.7%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4,331.32	2.6%	-14.7%	22.3%
나스닥	9,121.32	6.0%	1.7%	35.2%
S&P500	2,929.80	3.5%	-9.3%	28.9%
MSCI APxJP	471.77	0.0%	-14.7%	15.8%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미국채 2Y	0.161%	-3.7bp	-140.0bp	-93.7bp
미국채 10Y	0.685%	6.7bp	-122.5bp	-78.1bp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한국 5Y	33.2bp	1.2bp	12.1bp	-17.0bp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중국 5Y	47.5bp	-0.2bp	16.8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 월 11 일(월)>
- 관세청, 5 월 1-10 일 수출입

<12 일(화)>
- 한은, 4 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KDI 경제동향 5 월호(12:00)
- 기재부,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

<13 일(수)>
- 통계청, 4 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한은, 3 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4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4 일(목)>
-

<15 일(금)>
- 한은, 4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08:00)
- 기재부, 5 월 최근경제동향(10:00)
- 기재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 월 11 일(월)>
- 미국, 4 월 고용동향(23:00)
- 중국, 4 월 총통화(M2) 증가율(~18 일)
- 중국, 4 월 위안화 신규대출(~18 일)

<12 일(화)>
- 일본, 4 월 외환보유고(08:50)
- 중국, 4 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0:30)
- 중국, 4 월 소비자물가지수(CPI)(10:30)
- 일본, 3 월 경기동행지수(14:00)
- 일본, 3 월 경기선행지수(14:00)
- 미국, 4 월 NFIB 기업낙관지수(19:00)
- 미국, 4 월 소비자물가지수(21:30)
- 중국, 4 월 외국인직접투자(FDI)(~19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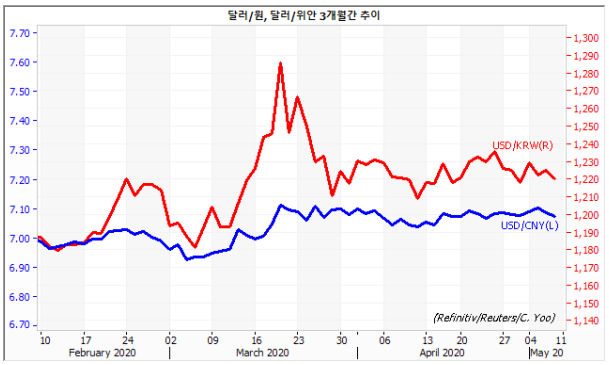
<13 일(수)>
- 미국, 4 월 연방예산(03:00)
- 일본, 3 월 경상수지(08:50)
- 일본, 3 월 무역수지(08:50)
- 유로존, 3 월 산업생산(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 지수(20:00)
- 미국, 4 월 소비자물가지수(21:30)

<14 일(목)>
- 미국, 4 월 수입・수출 물가(21:30)

<15 일(금)>
- 일본, 4 월 기업상품가격지수(08:50)
- 중국, 4 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11:00)
- 중국, 4 월 산업생산(11:00)
- 중국, 4 월 소매판매(11:00)
- 미국, 4 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21:30)
- 미국, 4 월 산업생산(22:15)
- 미국, 3 월 기업재고(23:00)
- 미국, 3 월 소매재고(23:00)
- 미국, 5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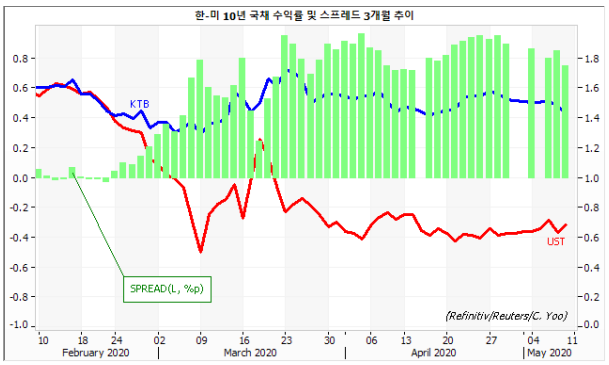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살피며 변동성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15-1235 원이다.
- 코로나 19 사태에 일시적으로 멈춰 섰던 주요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 하지만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0 일 다시 30 명대로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은 다시 점증되는 모양새다.
- 이동 제한 조치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주요국들에게 한국이 코로나 19 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 19 에 대한 집단감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시장심리는 급랭할 수 있다.
- 기대가 그나마 시장심리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심리에 따라 리스크 온/오프가 매번 달리 형성되는 여건인 만큼 결국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주간 등락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로는 12 일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3 일 한국의 4 월 고용 동향, 15 일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제한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주가 움직임 등이 관건이다.
- 지난 주말 미국 50 개 주 가운데 43 개 주가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정상화에 착수했다. 유럽에서도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대내외 주식시장은 이같은 경제재개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시장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코로나 19 의 확산 속도다. 현재 경제 활동을 재개한 미국의 주들 중에 백악관이 발표한 경제활동 재개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코로나 19 가 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채권 강세 흐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코로나 19 진정세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떨어내고 추가 상승한다면 채권 강세 흐름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시장만 보면 외국인의 국채선물 추가매수 여부도 관건이다.

(칼럼)-美-中 무역전쟁 재개, 리스크는 크고 소득은 적을 것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론세스턴, 호주 (로이터) - 최근 며칠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언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양국에 리스크가 훨씬 크고 세계 경제도 부수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가운데 11 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새 관세 부과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 일 중국이 지난 12 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산을 막지 못한데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중국 관세 인상이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믿는다면서도 이 바이러스가 인공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미국 정부기관들의 결론은 수용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원스 어폰 어 바이러스'라는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코로나 19 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조롱했다.

청징예 주 호주 중국대사는 호주가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제안한 뒤 호주산 제품 불매를 선언하기도 했다.

위협과 비난이 오간다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난 1 월 합의된 미-중 간의 무역 휴전이 끝날 리스크는 높아진다.

또 하나 생각할 만한 것은 1 월에 타결한 부분 무역합의의 주요 포인트들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미국산 에너지를 2017 년 91 억달러에서 2020 년과 2021 년 524 억달러를 늘리기로 합의했었다.

◆ 상품 수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 월, 3 월, 4 월에 원유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고, 5 월에 도착할 유조선이 두 척, 6 월 도착분이 한 척에 불과하는 등 수입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LNG 의 경우 4 월에 유조선 세 척이 2019 년 3 월 이후 처음으로 도착했고, 네 척이 이달 중 도착할 예정이나 6 월 도착분은 아직 예약된 바가 없다.

현재 21 달러선인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WTI) 가격을 감안하면 중국이 200 억달러어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10 만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가져가야한다. 이를 일할 계산하면 미국으로부터 하루에 274 만배럴을 수입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미국 총 수출의 약 90%에 해당하고 매일 유조선이 한 척 이상 도착해야한다.

물론 이런 매입으로 인해 미국산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 뻔하고, 다른 산유국들의 공급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산 원유는 높은 운송 비용으로 나이지리아나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비슷한 등급 원유와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미국산 LNG 도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게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인데, 미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미국 정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협 수위를 높인 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코로나 19 로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 년 중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중국이 다소 위태로워보였다.

지금은 미국이 1930 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직면해있는 반면 중국은 그럭저럭 코로나 19 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기업들은 추가 관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월가가 경제 부진이 심각한 시기에 재개된 무역 긴장에 어떻게 반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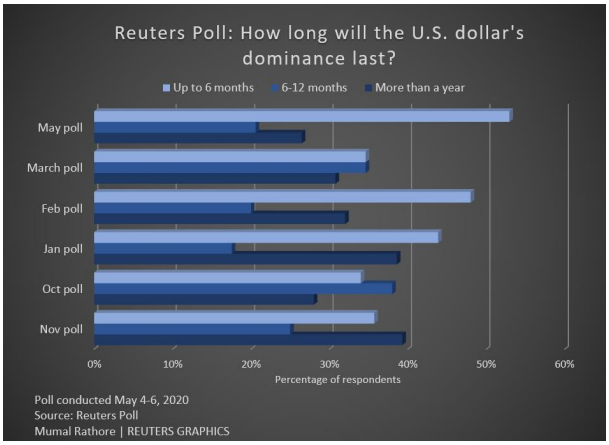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재개에 따른 파장과 11 월 대선까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림으로써 얻는 이득을 저울질 해야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매입을 강행하길 꺼리면서 대중국 미국 상품 수출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POLL)-코로나 19 판데믹 속 달러 강세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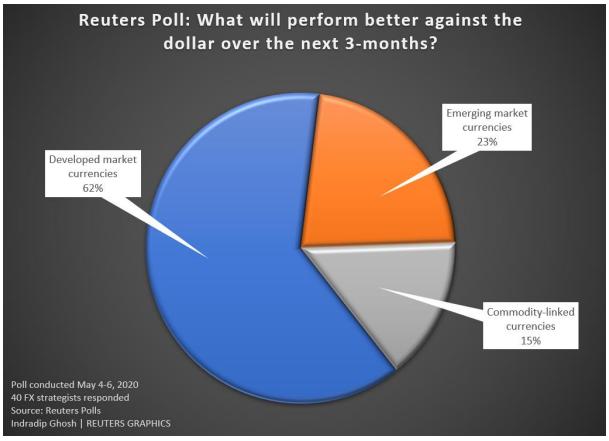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는 앞으로 최소 3 개월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34 명 중 26 명은 달러 우세가 최소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고 7 명은 3 개월보다 짧게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한 명은 이미 끝났다고 답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향후 3 개월 달러 대비 어떤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는 질문에 40 명 중 25 명이 선진국 통화라고 답했고, 9 명은 신흥국 통화, 6 명은 상품 관련 통화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증액 파장 '촉각'..환헤지 프리미엄 투자 성향 변화 관건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늘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3 년처럼 규제 완화가 보험사 해외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해외채권 투자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원화 채권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후 FX 스왑포인트나 통화스왑(CRS) 금리가 반등한다고 해도 이전처럼 환 헤지 프리미엄만 보고 해외투자를 급격히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증액, 스왑시장 안정시 효과

국회는 지난달 29 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보험업 규정에 따라 보험사들 일반계정의 외화자산 투자 한도가 30%, 특별계정

은 20%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두 계정 모두 5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 등 운용자산 대비 외화 유가증권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화자산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악화된 FX 스왑 포인트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확대됐던 단기 FX 스왑 포인트 역전폭은 최근 들어서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소 100bp 이상 나왔던 유로 표시 채권의 환 헤지 프리미엄도 사라진 지 오래다.

당장 AAA 등급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발행한 30년 만기 회사채를 매입해 3년 CRS로 헤지를 할 경우 80pb의 디스카운트를 감수한다고 했을 때 원화 환산 수익률이 1.7%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 입장에선 굳이 환 헤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등급 해외 채권을 사느니 1.6%대 30년물 국고채를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FX 스왑 포인트가 안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 완화와 맞물리며 보험사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홍철 DB 금융투자 채권 애널리스트는 "보험사의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헤지 후 수익률이 원화 채권과 대비해 얼마나 매력적이냐 여부"라며 "당장은 FX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폭이 매우 크지만 코로나 위기가 수년간 계속될 사안은 아니므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4분기 경부터는 백신 개발과 함께 FX 스왑이 위기 이전 수치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화 시의 달러/원 FX 스왑은 0bp 부근이고 만약 한국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경우 동 수치는 -25bp 정도"라며 "FX 스왑이 정상화되면 외화채 투자의 매력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 헤지 프리미엄만 보고 들어갔다 '낭패' 본 보험사들, 투자정책 바뀔 수도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선 환 헤지 후 원화 환산 수익률에 기반해 해외투자를 결정했던 기존의 투자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확대된 스왑 변동성 때문에 보험사들이 주기적으로 롤오버 리스크에 직면했던 만큼 당장 환 헤지 프리미엄만 보고 해외투자를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A 보험사 채권운용부장은 "3월과 4월에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며 "당분간 기본적으로 스왑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굳이 해외투자를 늘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면 글로벌 고등급 크레딧 채권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동성이 있는 외화 자산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대체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 보험사 채권운용부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금이 포지션을 더 열어준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은 보험사들이 환 헤지할 때 스왑 프리미엄이 얼마냐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할 물건을 선별해 왔다"며 "달러와 유로의 환 헤지 프리미엄만 보고 들어갔다가 큰 곤란을 겪었던 보험사들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는 매입금리 자체가 특정 레벨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책으로 가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점)-호·악재 뒤엉켜 달러/원 방향 묘연..해외 기관들 '상고하저' 전망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심한 몸살을 앓았던 원화는 일단 큰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엇갈리는 재료들에 갇힌 채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환율 상·하단을 확고하게 막아선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은 잦은 변동성 장세 속에 연일 '홀/짝 장세'를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실물경제 충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비관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2 분기 중 거센 경제 침체 충격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전망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공포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3 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게 잦아들었다.

3 월 중 일방적으로 상승 압력을 키웠던 달러/원 환율은 최근 1200 원대 초반에서 단단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원화 관련 주요 변동성 지표 중 하나인 달러/원 옵션 1 개월물 변동성은 지난 3 월 중 2011 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낮아져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다.

주요 해외 기관은 대부분 달러/원 환율을 전망하면서 상고하저 양상을 예상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 19 향후 전개 양상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됐다.

기관명	2020 2Q	3Q	4Q	2021 1Q
ANZ(5/1)	1300	1325	1290	1270
Barclays(3/24)	1300	1270	1250	1240
BOFA(5/4)	1300	1280	1260	1230
Capital Economics(4/28)	-	-	1225	-
Citigroup(5/6)*	-	1220.33	1209.33	1194.33
DBS(4/27)	1220	1200	1180	1160
FitchRatings(4/2)	-	-	1200	-
Goldman Sachs(5/6)*	-	1300	1250	1200
HSBC(4/8)	1155	1196	1156	1219
ING(4/24)*	1250	1180	1130	1120
JP Morgan(5/1)	1270	1230	1210	1200
MUFG(4/30)	1240	1190	1200	1175
Nomura(5/6)*	1227	1233.33	1193.33	1160
Stadard Charted(5/6)*	-	1233.33	1220	1200
Scotiabank (5/6)*	1220	1200	1180	1160
SG(3/18)	1290	1220	1230	1260
Westpac(4/9)	1215	1200	1180	1165

* Citi, SC, GS 3/6/12개월, ING, Nomura, Scotiabank 1/3/6/12개월 전망치

(해외기관별 달러/원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 대해 국제 투자자들이 다른 국가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일각에선 형성됐다.

ING 는 최근 FX 보고서에서 시장 신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 이는 아시아 통화들에 우호적일 것이라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나은 원화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원화는 달러 대비 약 5% 절하돼 G20 국가들 가운데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확산되는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원화 차별화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식을 조짐도 엿보인다.

소시에떼제네랄은 5 일 FX 보고서에서 중국은 주요 FX 메인 드라이버로 무역 전쟁 리스크의 재부상은 이후 큰 추세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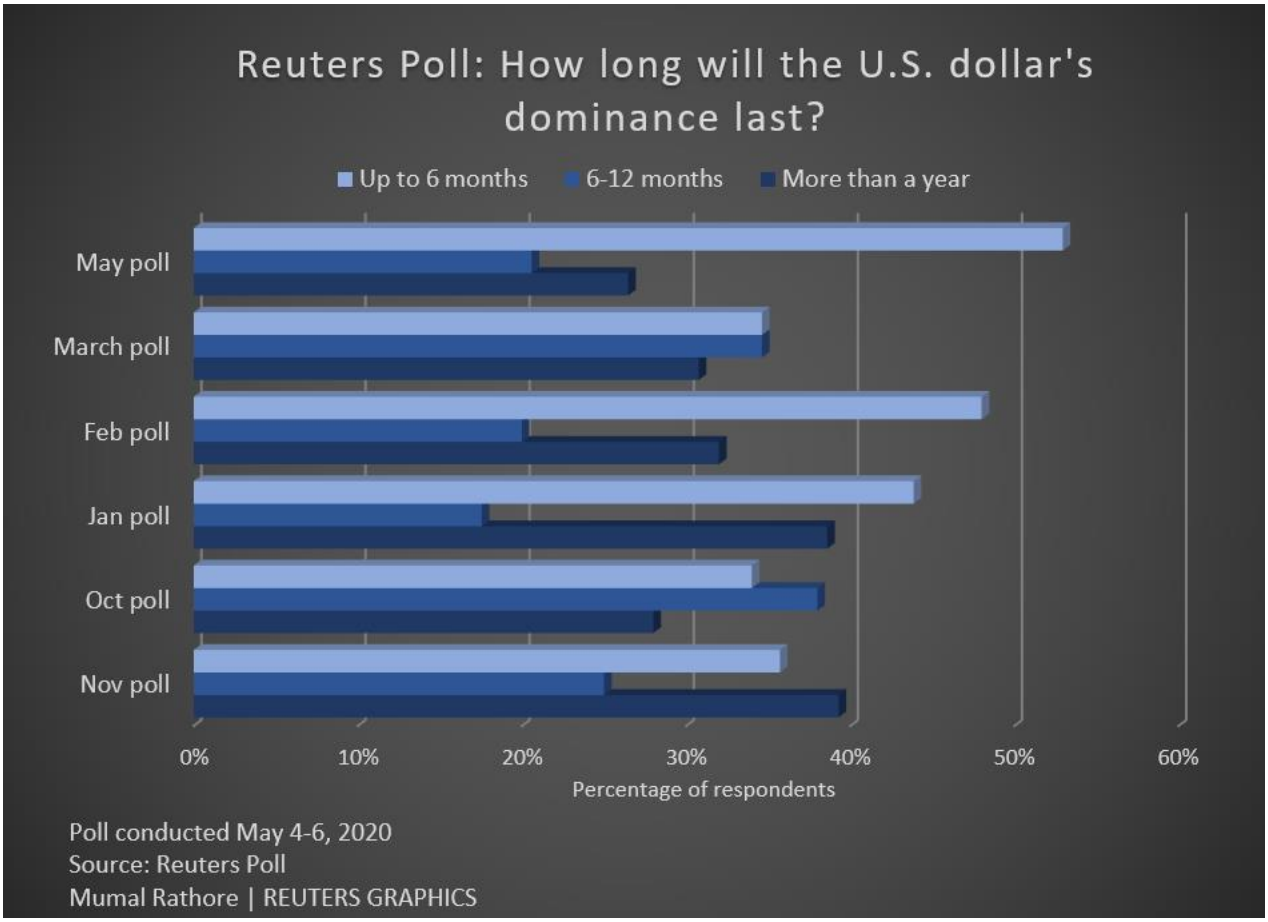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도이치은행은 최근 아시아 FX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과 5 월의 계절적인 달러 강세 속에 달러/아시아 롱 포지션이 재구축될 수도 있다면서 USD/INR 과 USD/KRW 가 가장 좋은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한 외환 딜러는 "코로나 19 에 따른 지표 악화는 이미 예상하고 있고,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도 있지만 이 또한 조심스럽다. 또한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가 원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미-중 갈등 확산 리스크가 이를 상쇄시키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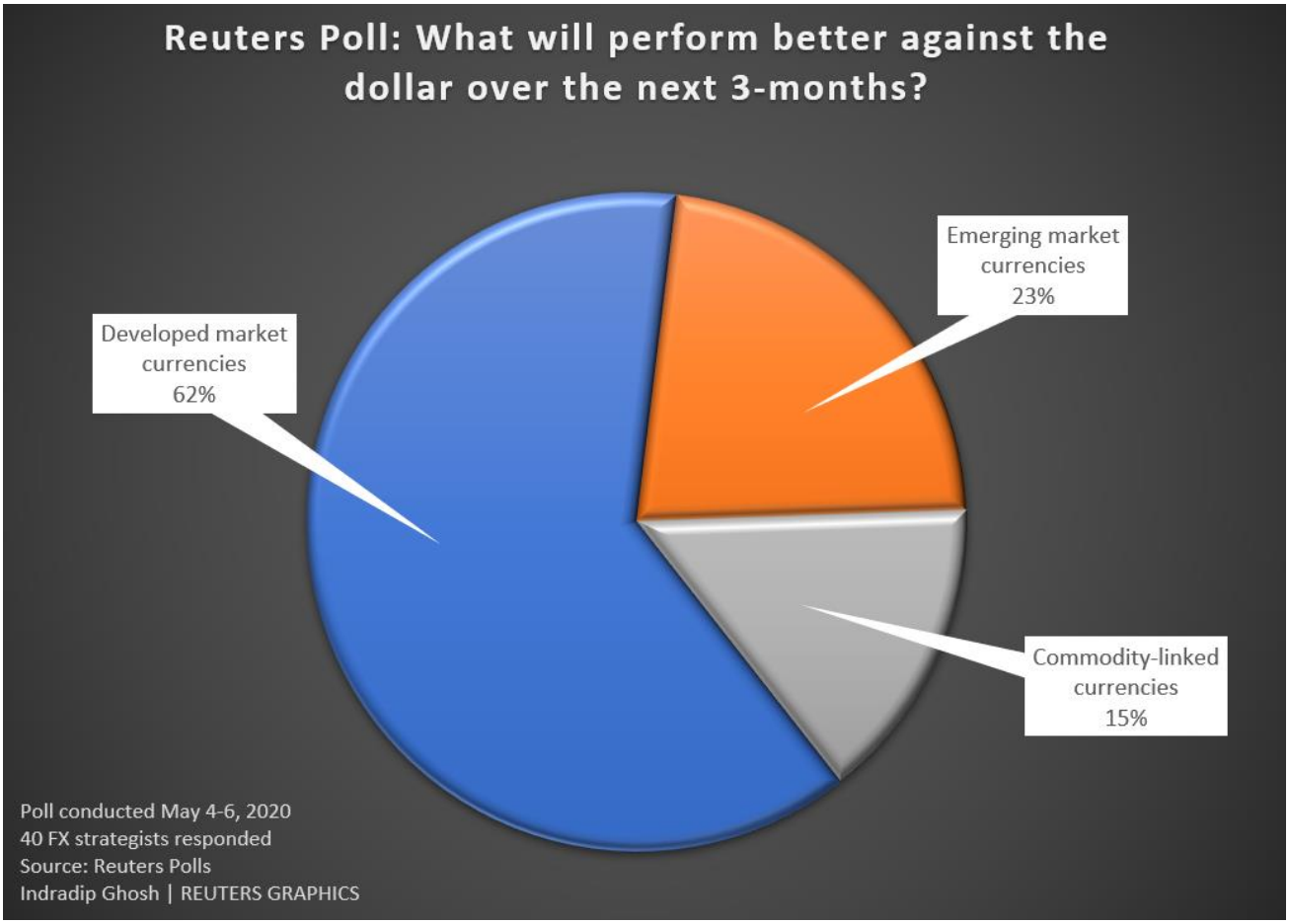
이에 "역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소극적인 가운데 단기적인 원화 방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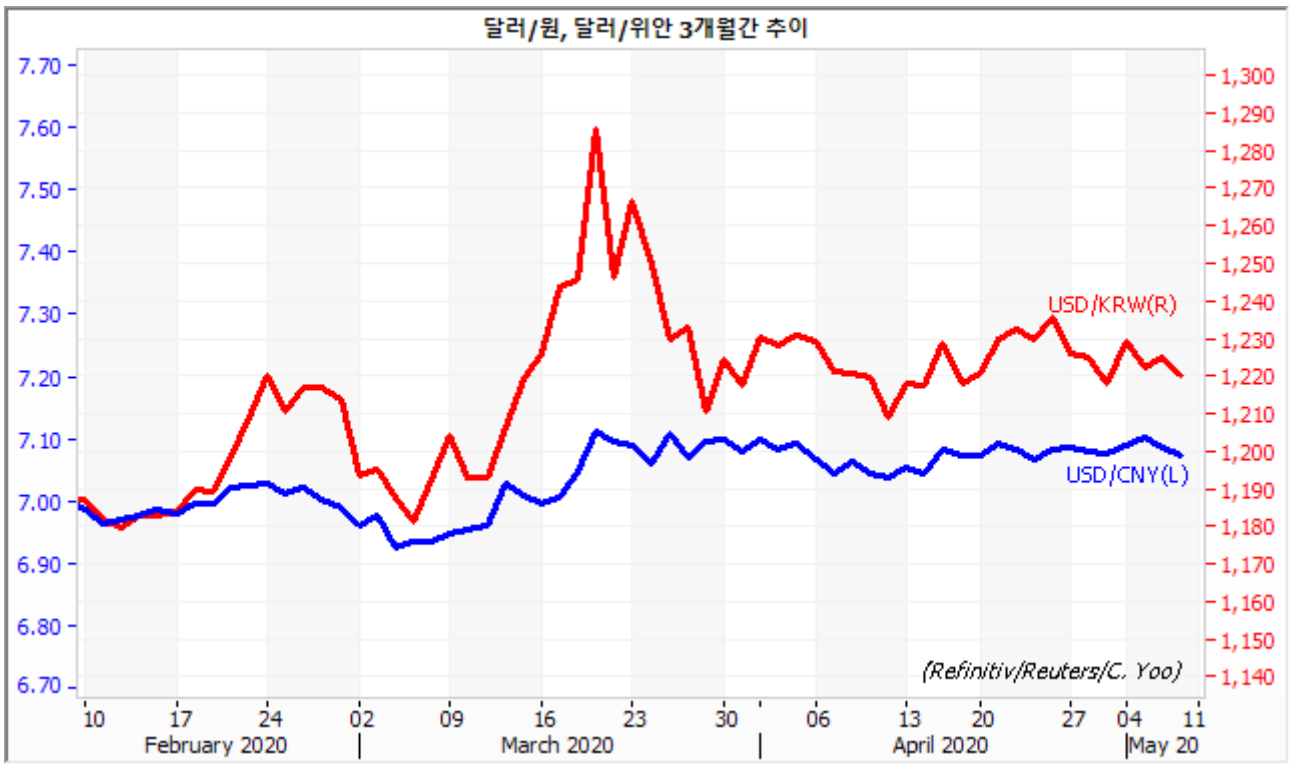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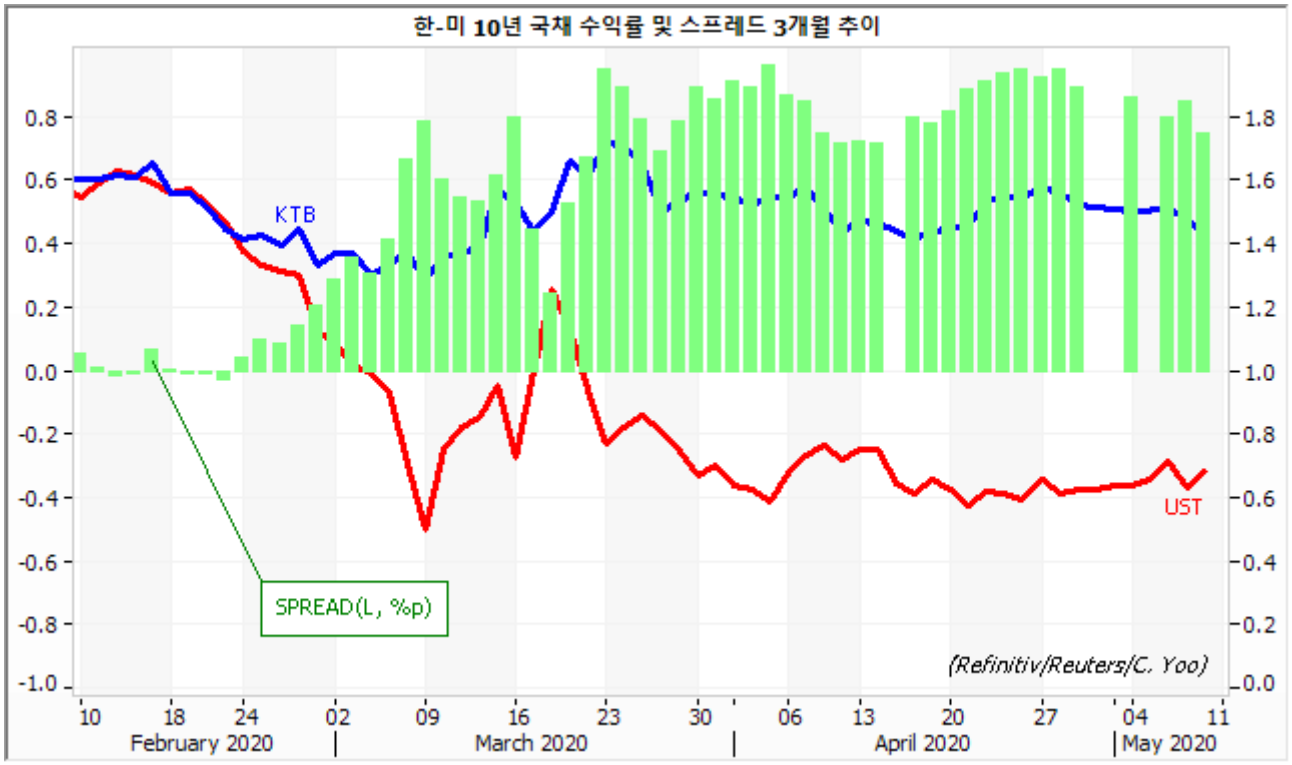
기관명	2020 2Q	3Q	4Q	2021 1Q
ANZ(5/1)	1300	1325	1290	1270
Barclays(3/24)	1300	1270	1250	1240
BOFA(5/4)	1300	1280	1260	1230
Capital Economics(4/28)	-	-	1225	-
Citigroup(5/6)*	-	1220.33	1209.33	1194.33
DBS(4/27)	1220	1200	1180	1160
FitchRatings(4/2)	-	-	1200	-
Goldman Sachs(5/6)*	-	1300	1250	1200
HSBC(4/8)	1155	1196	1156	1219
ING(4/24)*	1250	1180	1130	1120
JP Morgan(5/1)	1270	1230	1210	1200
MUFG(4/30)	1240	1190	1200	1175
Nomura(5/6)*	1227	1233.33	1193.33	1160
Stadard Charted(5/6)*	-	1233.33	1220	1200
Scotiabank (5/6)*	1220	1200	1180	1160
SG(3/18)	1290	1220	1230	1260
Westpac(4/9)	1215	1200	1180	1165

* Citi, SC, GS 3/6/12개월, ING, Nomura, Scotiabank 1/3/6/12개월 전망치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